'잊지 말기로 해' 음원차트 톱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제3108호 www.metroseoul.co.kr

물수능 쇼크 '떨리는 마음으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스마트폰 전쟁, 중국서 인도로

아·태 지역 가장 높은 성장률… 3분기 82% 증가
삼성·LG전자·샤오미 12억 시장 놓고 불꽃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 샤오미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간 패권 전쟁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로 침체기를 겪는 반면, 인도는 아시아 태평양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IDC 분석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인도 스마트폰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직전분기 대비 27% 늘었다. 결국 인도는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급부상 했다.

지난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로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저가형 제품으로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첫 타이젠 스마트폰 '삼성Z1'을 인도 시장에 출시한다. 삼성 모바일 기기 전문매체 샘 모바일은 2일 삼성전자가 첫 타이젠 스마트폰을 오는 10일 인도 시장에서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가격은 100달러 미만으로 저가형 시장 공략용으로 책정된 것이다.

여기에 웨어러블 기기 시장 확대까지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타이젠 탑재 웨어러블 기기는 '기어2'와 '기어S' 등이 있다.

여들과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급부상한 샤오미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휴고 바라 샤오미 부사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도에서 신제품 '홍미노트' 출시 첫날 준비된 물량 5만대가 6초 만에 품절됐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인도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바티에어텔과 손잡고 이날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플립카트를 통해 홍미노트 판매를 시작했다.

홍미노트는 5.5인치 HD(720p) 해상도 디스플레이, 미디어텍 1.7GHz 옥타코어 프로세서, 2GB 램(RAM), 1300만화소 카메라, 3100mAh 배터리 등을 탑재했다. 가격은 8999루피(약 16만원)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중인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G3와 보급형 L시리즈로 고급 시장과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사 보급형 제품인 L시리즈는 국내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G3를 비롯해 파생모델인 보급형 L시리즈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가격구조를 세분화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12억 인구 대국인 인도가 새로운 스마트폰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연성주기자 ysw@metroseoul.co.kr

작년 태어난 아이 82세까지 산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 6.5년… 역대 최저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10년 전보다 4.5년 증가한 81.9세로 나타났다.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는 4년 연속 감소하여 역대 최저인 6.5년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녀 아이의 기대수명은 각각 78.5년, 85.1년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6년, 여자는 0.4년 늘었다.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서는 남자는 4.7년, 여자는 4.2년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서는 남성은 1.0년, 여성(85.1년)은 2.2년 길다.

특히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6.5년)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남성이 늘면서 남녀 기대수명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5.3년)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사망 원인 확률 1위는 역시 암이 꼽혔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남자는 28.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여자 역시 암으로 숨질 확률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16.6%로 나타났다. 암이 제거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4.7년, 여자 2.8년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사망 확률은 폐렴으로 남자는 4%포인트, 여자는 4.3%포인트 늘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사망 확률은 뇌혈관 질환으로 남자는 5.3%포인트, 여자는 5.9%포인트 줄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지역희망박람회장 둘러보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방문, 충청남도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정윤회 문건' 도봉경찰서·박 경정 자택 등 압수수색

'청와대 3인방' 소환 조사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또 해당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48)경정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박 경정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 3층 정보과와 박 경정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박 경정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도봉서 사무실과 정보분실에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경정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출국금지시켰다. 또 올해 4월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 인근에서 내린 뒤 자취를 감췄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고'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부작용 대안 없는 담뱃세 인상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유통부 기자>

말 많던 담뱃세 인상이 확정됐다. 지난 2일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담뱃값이 내년부터 제품당 각각 2000원씩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현재 42% 수준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16년에는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 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하게 되면 202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자는 이번 법안 처리에 관여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이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는지를 말이다.

일단 이번 담뱃세 인상의 화두는 서민 증세 논란이었다. 그 와중에 비가격 정책은 이번에 제외됐다. 담뱃세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2015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구성에서도 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3%밖에 투입되지 않는 모순이 드러났다.

더욱이 담배 사재기가 벌써 극성이다. 정부가 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했지만 이미 사재기현상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밀수 담배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싼 값에 담배를 들여올 수 있는 국가에서 밀수 담배의 개별적인 수입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 얘기가 나온 올해 상반기부터 밀수 담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음지에 있는 불법 유통까지 확산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진다. 밀수 담배가 활성화되면 국내 담배산업의 기반조차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담배 대란'을 불러온 장본인인 정부는 좋은 취지를 올바르게 이어 가기 위해서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명심해야 한다.

'방산비리' 방사청 청렴도 평가 최하위

올해 방산비리가 불거진 방위사업청의 청렴도 하락폭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64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 결과에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됐다. 측정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정원 20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이 10점 만점에 8.0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세청이 6.71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8.27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방사청이 6.93점으로 꼴찌였다. 방사청은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0.79점 낮아져 중앙행정기관 Ⅰ·Ⅱ유형을 통틀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조현정기자

<메트로신문 수습기자 필기시험 합격자>

구무서	유선희	전익성
김정은	이보라	정미나
김지수	이정은	정수현
박예슬	이지훈	정윤아
부예리	이혜원	황찬수
양소리	장은영	

- 면접은 9일과 10일 예정이며 시간은 개별통보함

선진화법 다시 손대나

여 권한쟁의 심판청구 서명 착수 야 제도 개선 협상 제안 검토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 선진화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여야는 선진화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모두 재개정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는 야당이 유리하고, 예산안 처리는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쥐도록 설계된 선진화법의 조항때문에 여야가 손대고 싶어하는 부분이 정확히 상대가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어서 실제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 정국에서 미뤄왔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서명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이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며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공식 요청하고, 이 과정을 거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선진화법에서 특히 문제삼는 대목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별도로 토론과 조정 절차를 보장하되 일정 시점에는 여야 합의없이도 쟁점법에 대한 표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법 재개정안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충분히 보장한 선진화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예산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법 시행 첫 해를 거치며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현정기자

여, 야 지도부 찬사 릴레이

새누리당은 여야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야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민신뢰 회복의 첫단추를 잘 꿰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약속을 지킨 새정치연합 지도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이제 예산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며 "야당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권 출범 1년 반 내내 발목잡기로 국정을 어렵게 만들어왔던 야당이 최근에 새 지도부, 특히 문희상·우윤근·안규백·백재현 이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 역할 수행은 크게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전문대, 정시서 4만명 뽑는다

19일부터 원서 접수 … 전년보다 13.7% 줄어

137개 전문대학에서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 4만52명을 선발한다.

이번 정시모집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선발 인원이 전학년도보다 13.7%(6372명) 줄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3일 '2015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원서 접수는 1차로 15일간(2014년 12월 19일~2015년 1월 2일), 2차로 5일간(2015년 2월 10일~2월 14일) 실시된다.

1차 접수는 137개 대학이 모두 실시하지만 2차 모집을 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대학이 같은 기간에 원서를 접수토록 했다.

전문대 전체 모집인원(22만3827명) 중 정시모집 비율은 17.9%로 전년도(19.5%)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정시에서 '군'별 모집을 하지 않으며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기간 전문대와 일반대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일반대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어도 전문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대학 온라인 입학정보센터(http://sper.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파에 계량기 동파 속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아리수동부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가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어부지리를 챙긴다

여의도 핫트랙

예산안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은 빗나갔다.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의 위력이다.

매년 12월 31일을 밤새우게 만들었던 관행은 전설로 남았다.

'자동부의 때문에 11월 30일'로 못 박은 위원회 심사 기간이 끝나자 야당은 손발이 묶였다.

반면 희희낙락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유리해진 심판에 표정 관리하느라 바빴다. 여당은 11월 30일까지 버티면 끝나는 간단한 게임이 돼 버렸다. 야당은 자동부의 앞에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자동부의 조항에 묶이면서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원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은 큰 문제다. 국회 심의권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자동부의가 실행되기 전까지 여야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저 관례대로 어디도 버티면 뭔가 되겠지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막상 개정 법조항에 따른 절차를 좇으니 닭 쫓던 개처럼 멍한 상황이 연출됐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국토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예산 심의권밖에 없는 점을 한탄했다. "국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가면 끝인데. 이거 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뭐 하는 거니까"라며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권만 있을 뿐 증액도 못 시킨다'고 고백했다.

국민들은 예산 심의권 국회에서 하면서 큰 폭으로 예산이 깎이거나 바뀌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우 3조~5조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도 정부 제출 376조원 중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결과적으로 6000억원 줄였을 뿐이다.

신 의원의 고백처럼 국회는 증액하려면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재부에 아쉬운 길 해야 하는 서글픈 처지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온당치 않다.

법안 제출권도 정부와 공유하면서 실제로 통과돼 실행되는 법률은 대부분 정부안이다. 게다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만드는 시행령에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점은 두말하면 입만 아프다. 예산도 법안도 모두 정부 손아귀에 있는 셈이다.

요즘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정부에 끌려다니는 국회가 싫다는 생각에 개헌파에 합류하고 있다. 여야 싸움만 부각시키는 선정적인 정쟁 위주의 정치기사 홍수 속에 우리가 잊으면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국회의원이 혐오받고 사회적으로 취급당하고, 국민이 본인들의 대변인인 국회를 버리면 견제받지 않는 정부는 어부지리를 챙긴다.

/유보해

베링해 침몰 '오룡호' 최소 12명 사망

한국인 선원 3명 확인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트롤어선 '501오룡호'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선원 11명의 시신이 인양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조조정본부는 3일 사고 해역에서 모두 11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우리 정부 측에 알려왔다.

이로써 501오룡호 침몰에 따른 실종자는 52명에서 41명으로 줄었다.

사고 당시 오룡호에는 60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구조됐다가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고 52명이 실종된 상태였다.

시신으로 발견된 선원들의 신원과 정확한 발견 위치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조산업은 전했다.

이날 오전 실종 선원 가족들은 "사조산업 측에 시신으로 발견된 선원의 신원을 빨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막상 사고해역에서 선원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하니 가족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부유물 등이 모여 있는 사고해역 인근을 선박 4척이 집중 수색하다가 시신 2구를 발견, 인양했다고 잘리브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감독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체 60명의 선원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41명이다. 7명은 구조된 바 있다.

수습된 시신은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 필리핀 선원 1명으로 추정된다.

/유주영기자

"산업폐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3일 오전 울산시 남구 처용암 앞 바닷가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산업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속도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첫 번째 민간 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과되면서 낙후된 일대 환경이 빠르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1만 180.1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과 2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이곳에는 2018년 10월까지 지하 8층~지상 20층, 연면적 14만4472㎡ 규모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 시청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업무 중심축을 잇게 된다.

사업지 주변의 가로변 활성화하고 옛길을 보전하는 공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기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쇄 관련 산업, 간판과 광고물 제조업, 화초 등 식물 소매업, 가구 소매업 공간을 확보하고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세운상가군을 제외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171구역으로 분할 개발, 도시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주영기자

한선숙 교수 무용예술상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 무용예술학과 한선숙 교수가 2014년 무용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현대무용협회에서 수여하는 무용예술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4일 저녁 서울 알로프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14년 한국현대무용인의 밤'에서 거행된다.

방송대, KBS미디어 협약

한국방송통신대는 3일 대학 본부 6층 회의실에서 KBS미디어(주) 형설출판그룹과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로 KBS미디어와 형설출판그룹이 공동개발·운영하는 KBS방송아카데미온라인평생교육원(www.kbselife.com) 내에 방송통신대 OER(Open Education Resources) 특별관을 개설한다.

수프캔을 모자로?

metro Russia

美 디자이너 이색 작품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등 제르르코바 문화센터에서 영국의 모자디자이너 필립 트레이시의 '21세기의 모자' 전시회가 열렸다.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난초 모자', '수프 캔 모자' 등 이색 작품을 소개한다.

◆ 난초의 유혹

서양란의 아름다운 자태를 표현한 난초 모자. 1990년 필립 트레이시가 말레이시아의 한 식물원에서 난초를 본 뒤 매료돼 만든 작품이다.

◆ 전하기 모자

패션 박력적이고 독특한 의상을 선보이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영국 BBC의 조나단 로스 쇼에 출연할 당시 착용한 모자다.

◆ 베컴을 머리 위에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얼굴을 모자로 만들었다. 미 재거와 마릴린 먼로의 '얼굴 모자'도 눈에 띈다.

◆ 수프 캔 모자

미국의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초기 대표작인 캠벨 수프 캔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다.

◆ 오묘한 식충 식물

동화 작가 닥터 수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식충 식물을 모티브로 한 모자.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에메랄드 색상이 인상적이다.

/류살리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17세기 작품에 노상방뇨

metro France

만취한 학생 실수

최근 만취한 대학생이 네덜란드 화가 테오도르 반 튈덴의 17세기 작품에 노상방뇨를 해 경찰에 붙잡히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번 해프닝은 서부 프랑스의 앙제 보자르 박물관에서 벌어졌다. 10년 전부터 해당 박물관은 학생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장은 술에 취한 학생 때문에 작품이 더럽혀졌다고 분개했다. 그는 "학생이 직접적으로 작품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매우 취한 상태였고 해당 작품만이 그 전시실에서 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물관 경비가 노상 방뇨를 한 학생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훼손된 작품의 손해 배상 금액은 대략 5만 유로(약 6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쥘리앙 사부루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도 넘은' 버스 방화 시위

metro Brazil

브라질이 버스 방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파울루 시민들의 '반달리즘(문화 파괴)' 행위 때문에 훼손된 버스 수가 작년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파울루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민이 저지른 화재로 파손된 공공 버스 수가 125대라고 전했다. 이는 3일 평균 한 대의 대중 버스가 불에 탄 셈이다. 손실 금액은 약 50만 헤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란시스쿠 크리스토방 상파울루 대중 버스 조합장은 "버스에 불을 지르는 시위는 물 부족, 홍수, 사망 등의 이유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트시우 마우라스 기자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이란·북한 틀났다 무차별 사이버 공격 시작!

한국 항공사도 표적

이란이 세계 각국에 사이버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한국 항공사와 대학도 표적이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해커들이 세계 6대 석유·가스회사 등 다른 나라의 기관 수십 군데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

FT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인용, 이란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해커들의 '물리적 파괴 능력'을 키워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미국은 악성코드 '스턱스넷'으로 이란 핵농축 시설의 전산망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이란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사이버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사이버 무기를 개발했다.

최근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사일런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해킹그룹은 '클리버'(큰 식칼)로 불린다. 특히 이들은 항공사와 공항 해킹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세계 최대 항공사와 주요 공항에 접근, 공항 탑승구를 통제하고 승객의 신분증을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클리버는 석유 가스 시설의 가동 시스템을 해킹한 적이 있으며 전력회사와 화학 그룹 등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대상 대부분은 중동과 미국에 있다. 한국의 공항, 항공사, 대학 등도 목표물이다. 이란이 한국을 목표물로 삼은 이유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소니 영화사는 해킹

북한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니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25일 개봉할 예정인 만큼 북한과 연관된 집단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지디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소니 영화사가 1일 해킹공격을 받았다. 이번 공격으로 최근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퓨리'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캐머런 디아즈 주연의 애니 '스틸앨리스' 등이 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해킹공격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에는 한글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발견된 악성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 파일을 덮어쓰거나 컴퓨터 부팅에 필요한 정보의 저장 장소인 MBR(마스터 부트 레코드) 등을 손상시켜 컴퓨터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며 "지난해 3월 한국 내 다수 은행과 2개 방송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터뷰 기회를 잡은 미국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김정은 암살 지령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전을 북한이 강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국현기자 kmlee@

日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사2' 발사 일본의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사2'를 실은 H2A 로켓이 3일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적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하야부사2는 세계 최초로 소행성 시료 채취에 성공했던 일본의 초대 탐사기 '하야부사'를 계승한 것이다. 이르면 2018년 여름 소행성에 착륙해 1년 반 동안 시료 채취와 조사 활동을 벌인 후 2020년 말 지구로 귀환한다. /AFP 연합뉴스

LA 살인적 폭우로 마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살인적인 폭우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AP·AFP·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남부 지역에 이틀동안 최대 강수량 15.24c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50년 만에 최대다.

강풍을 동반한 이번 폭우는 LA를 비롯해 해안 지역, 벤투라 카운티, 샌타클라리타 카운티, 샌타바버라 카운티, 샌가브리엘 앤텔루프 밸리 지역,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LA 북서쪽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산에서 시뻘건 진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고, 물이 넘쳐 흐르면서 곳곳에서 도로 기능이 마비됐다.

정전 사태도 잇따랐다. 어바인과 샌타애나, 터스틴 등에서는 나무가 전신주에 쓰러지면서 1만 1300세대가 정전 피해를 봤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이국현기자

"금융시스템 이행 다양한 시나리오 세워야"

통일금융, 통합과정의 리스크요인 분석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 필요

금융가 사람들

■전상욱 우리금융 전략연구실장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통일금융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북한 경제 재건에 소요되는 약 5000억 달러(한화 약 549조원)의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통일 대박'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이라는 화두가 정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로 가는 길에 장밋빛 전망만 존재할까.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최근의 통일 논의를 보면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될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이 가시화된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통일TFT 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통일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데이터가 부족했다"며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주도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려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통일금융 방안은 막연한 생각에서 진일보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 실장은 다만 "남북한보다 경제력 격차가 훨씬 작았던 독일도 화폐의 1:1 통합 등 경제통합의 후유증으로 동독지역 물가 상승률이 20%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15%에 달하는 등 현재까지도 동서독 지역 간 경제격차가 크다는 점을 볼 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을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이 단기간에 통합되면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금융시스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통일 관련 상품과 연구 등에도 힘점이 가해졌다.

그는 단편적인 상품개발 노력만으로는 통일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통일금융은 정치적인 통일의 가시화 여부와는 별개로 금융시스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이 주요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경제의 혼란과 해외 은행들의 시장 선점 등 통제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통일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만을 누기보다 다방면에서 각각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북한경제에 대해 심층 연구를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해외 은행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협동을 강조했다. 또 "정치·군사적인 긴장관계가 완화되어야만 가능하겠지만, 통일금융은 남북 금융시스템의 통합과정의 기회와 리스크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이란기자 silver820@metroseoul.co.kr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이 통일 금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왼쪽 세 번째), 조태영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이 개소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 대표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현지 사무소는 자카르타 금융 중심가인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있다.

전날 기소식에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조태영 인도네시아 대사, 임경종 수출입은행 현지법인 대표, 인도네시아 증권업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1974년 홍콩 현지법인을 시작으로 런던(1994년), 뉴욕(2001년), 싱가포르(2008년), 베트남(2010년), 베이징투자자문사(2010년)에 이어 7번째 해외 거점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베트남 진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한투증권의 베트남 현지 증권사의 경우 인수 2년 만인 2012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진출 당시 60위권이던 순위도 22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서 가능성이 확인되면 현지법인 설립이나 현지 증권사 인수 등을 통해 든든한 계열사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8@

'사랑의 방한용품 보내기'

삼성화재, 12일 까지 페이스북 캠페인

삼성화재는 오는 12일까지 '사랑의 방한용품 보내기' 페이스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1부서 1아동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방법은 삼성화재 페이스북을 방문, '사랑의 방한용품 보내기' 게시물을 '좋아요' 또는 친구들과 '공유'하면 되며, '좋아요' 10개당 장갑·목도리 1세트가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전달된다.

오상민 삼성화재 커뮤니케이션 파트장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고객 사회와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동석기자 kitc@

"中채권 시장서 위안화 무역결제 투자 가능"

외환은행이 위안화 무역 결제 관련 자금을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CIBM)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3일 외환은행은 지난 1일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CIBM 투자 허용에 대한 최종 허가를 통보 받아 이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IBM란 국금채와 회사채가 거래되는 중국 본토 내 은행 간 장외시장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무역결제에 있어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보이는 해외 무역결제 은행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권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번 '중국 은행간 채권 시장(CIBM) 투자 승인 획득'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관련 자금을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수출입 업체가 외환은행을 통해 대중국 무역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면 중국 본토의 고금리 채권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채명석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1969.01 (+4.08)	545.02 (+3.49)

금리	환율
2.12 (+0.04)	1112.40 (+1.70)

총성 없는 '오일 전쟁' 승자는

미국발 셰일가스 vs OPEC 격돌… 하락에 美 적대국 이란·러시아 치명타

셰일가스로 촉발된 미국과 중동의 총성 없는 에너지 전쟁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0년 이후 셰일가스를 생산한 미국은 획기적인 '수평정 시추기술'과 '수압 파쇄법'을 개발하면서 하루 90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미국발 셰일가스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급 과잉을 유발시키며 유가 하락을 불러왔다.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감산을 통해 유가를 조절하려고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었지만 감산에 실패했다. 하루 95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며 OPEC을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반대하자 OPEC는 하루 3000만 배럴 생산 목표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는 유가를 떨어뜨려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을 무너뜨리고 OPEC의 시장 지배력을 재확인한 뒤 다시 고유가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복안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왼쪽)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결국 OPEC 감산 실패 이후 유가는 추락을 이어가며 3일 현재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선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킨 게임'이 된 이번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일단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OPEC 회원국들은 이번 싸움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재정이 빠듯한 베네수엘라나 이란은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OPEC 비회원국인 러시아는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과거 고유가 시절 러시아는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너지기업과 금융회사를 거느리며 '푸틴의 아이들'로 불리는 메가리치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루블화가 5% 가까이 폭락했고, 외환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국채금리는 폭등했다. 지난해 초 6.5%대였던 러시아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현재 10.7% 선으로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이 금리가 7%를 넘으면 국가 부도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은 유가가 40달러 중반대까지만 형성돼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미국 정부의 지원사격도 큰 버팀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원유의 신질서'라는 보고서에서 "OPEC는 원유 가격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고, 가격 결정력은 점차 셰일가스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나눔과 감동의 페스티벌 홈플러스는 31일까지 4주간 신선식품과 생필품, 크리스마스 먹거리, 의류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해 매출액의 일부는 백혈병 어린이와 유방암 환자 수술비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외환보유액 넉달째 감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넉달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31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6억3000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하다 올해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보유 외화자산 가운데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액이 4개월 이상 연속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4~1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11월 중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1.2%, 파운드화 가치는 1.7%, 엔화 가치는 7.3% 각각 평가절하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연금복권520 제179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3조	310358
		6조	476482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33000
4등	100만원	각조	77138
5등	2만원	각조	384
6등	2000원	각조	67
7등	1000원	각조	14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8 [illegible]
독자센터 02)721-9891
[illegible]

정교하게 발전하는 3D프린터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4 국제신소재 및 융합기술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3D 프린터 제작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에 울고 '겨울왕국'에 웃었다

올해의 키워드 동향

올해 대한민국은 '세월호'에 울고 '겨울왕국'에 웃었다.

포털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의 올해 최다 검색어로 본 우리나라 기상도다. 최다 키워드는 PC와 모바일에서 각 포털 통합 검색창을 통해 많이 입력된 검색어를 바탕으로 했다. 네이트와 줌은 올해 키워드 발표 계획이 없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벌어진 세월호 침몰 참사는 시사·사건 분야 최다 검색어와 전년 대비 상승 폭이 가장 큰 검색어로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의 올해 최다 검색어는 '세월호'였으며 다음카카오 사건 분야 올해의 검색어도 '세월호'가 차지했다. 구글 코리아에서도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사회 검색어는 세월호 관련 이슈였다. 구글 코리아의 사회 분야 검색어 1위는 '세월호', 2위는 세월호 추모 상징인 '노란 리본', 3위는 세월호 유족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였다.

문화·예술 분야 최다 키워드는 역대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된 '겨울왕국'이 선정됐다. 다음카카오의 올해 신규 검색어 1위와 영화 검색어 1위는 모두 '겨울왕국'이었다. 네이버와 구글 코리아에서도 '겨울왕국'은 전년 대비 상승 폭이 큰 인기 검색어 중 하나였다.

관련 모바일 검색에서는 '날씨' 검색어가 두드러졌다. 이용자들이 실시간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검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네이버에서는 '날씨'와 '미세먼지' 등의 기상 정보가 인기 검색어로 뽑혔다. 구글 코리아 최다 검색어 역시 날씨였으며 날씨의 연관 검색량은 봄과 여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 측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은 외부 활동이 많은 시기이고, 여름은 장마 때문에 날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날씨'와 '내일 날씨' 중에서는 '오늘 날씨'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illegible]기자 unique@

중저가폰·사물인터넷

2015년 ICT 10대 이슈

KT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변화를 경쟁, 기술관점 등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는 '2015년 ICT 10대 주목 이슈' 특집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내년을 '경쟁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기'로 규정하고 레드오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기존 스마트 시장은 생존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중심 시장이 줄어들면서 국내 시장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저가폰'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본격화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와 라인의 플랫폼 대결 제2 라운드가 관심 대상인 '모바일 메신저' ▲정부의 클라우드 진흥 정책과 글로벌 기업의 참여 확대로 주목받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중국 ICT 시장'이 레드오션 속 생존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융합시장은 신산업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퍼스트 연결을 위한 플랫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사물인터넷(IoT)' ▲생활밀착형 지가 단말 위주로 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스마트홈' ▲ICT 기업들의 새로운 플랫폼 격전지가 될 '모바일 헬스케어'가 대상이다. 이밖에 ▲새로운 비즈니스로 부상하는 'O2O(Online to Offline)' ▲스마트워치 경쟁과 개인서비스 로봇 실용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넥스트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도 ICT 10대 주목 이슈로 꼽혔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1973 ······································ 2014

마흔 한 살 장학퀴즈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믿음, 변치 않고 지켜갈 SK의 믿음입니다

행복을 나눕니다 OK! SK

이수창 생보협회장 오늘 선임… 현안 수두룩

조직 장악·친화력 강점… 업계 장기불황·당국 규제 강화 등 난제 해결해야

이수창(65·사진) 차기 생명보험협회 회장 후보의 최종 선임이 4일 결정된다. 그간 보험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여온 이 후보가 협회장 수행에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업계 불황과 중소사와 대형사 간 융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생보협회는 이날 사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협회 소속 전체 23개 회원사의 찬반투표 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3년이다.

투표권은 회원사당 1표씩 행사할 수 있으며, 기준12개사기 투표에 찬성표가 과반 이상 득 넘으면 이 후보는 신임 생보협회장으로 선임된다.

업계는 이 후보의 차기 협회장 선임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40년간 꾸준히 '삼성'에 몸담으면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1973년 삼성그룹 공채 14기로 삼성생명에 입사한 그는 이후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등 그룹 계열사를 거쳐 1993년부터 삼성생명 상무, 부사장 등을 지낸 보험 전문 경영인이다.

특히 이 후보는 꼼꼼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뛰어난 조직장악력과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도 그는 회추위원들에게 조직장악력 평가가 단독 후보 추천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후보자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업계 불황과 대형사와 중소사 간 조율 등 적지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생보업계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장기불황 지속으로 삼성·한화·교보 등이 올해에만 1800여명을 구조조정했다. 연말에도 여러 대형사와 미래에셋, 에이스 등이 인원감축을 진행했거나 할 계획이다. 또 전속 설계사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이동에 따른 영업력 약화,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에 따른 규제 강화 등 업계 문제에 협회 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막중하다.

중소사를 끌어 안는 포용력도 발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40년간 삼성에 몸담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10년 만에 탄생하는 민간출신 생보협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업계 자체가 장기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선임되면 협회 수장으로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0대 그룹 중 CJ·SK 주가만 상승

10대 그룹 가운데 올해 주가가 오른 곳은 CJ그룹과 SK그룹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곳의 주가는 모두 떨어졌다.

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전날까지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변동을 집계한 결과 CJ그룹 시총이 21.4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SK그룹 시총도 13.05% 늘어났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42.54%)은 주가가 반토막났고 롯데그룹(-21.58%) 현대차그룹(-14.17%) 신세계그룹(-11.29%) 포스코그룹(-9.62%) 한화그룹(-5.00%) LG그룹(-2.40%) 등 나머지 그룹들 시총은 일제히 감소했다.

삼성그룹은 기존 16개 상장사의 시총은 이 기간 3.86% 줄었으나 지난달 상장한 삼성SDS를 추가하면 4.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CJ그룹과 SK그룹은 올해 내수주가 수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한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CJ그룹 계열사 중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의 주가가 96.50% 치솟았고 식품(CJ제일제당), 방송·문화콘텐츠(CJ E&M) 등이 20% 넘게 뛰어올랐다.

SK그룹도 통신(SK텔레콤), 정보기술(IT)서비스(SK C&C) 등 대수업종 계열사들이 두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복에 힘입어 32.37% 오르면서 그룹 시총 증가에 일조했다.

통합 첫 상품 '싱크 카드' 출시 하나카드는 3일 하나SK·외환카드 통합 출범 첫 상품으로 실적조건이 없이도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싱크(Sync)카드'를 출시했다. 카드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카드의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50만원 실적조건에 1% 혜택을 제공하는 '싱크 투게더'와 조건 없는 혜택인 '싱크 조이'를 월1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형과 할인형 가운데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 제공

동부증권, ELB·ELS 4종 판매

동부증권은 오는 5일까지 최고 연 4.41%의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최고 연 7.02%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원금보장 하이파이브 형태 ELB 1종과 원금비보장 스텝다운 형태의 ELS 3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동부 세이프 제112회 파생결합사채(ELB)'는 KOSPI 200지수와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100%(4, 8, 12, 16, 20, 24, 28, 32개월) 이상이면 연 4.41%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이면 13.23%의 수익을 지급하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원금의 100%를 보장하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KOSPI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1471회는 3년 만기 상품이다.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과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4, 8, 12개월), 85%(16, 20, 24개월), 80%(28개월), 75%(32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원금과 연 6.99%의 수익이 지급된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엔저 가속화되나?

14일 중의원 선거 환율 향방 분수령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서 향후 엔화 변동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엔저 심화의 재료이기는 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이뤄진 엔저 등을 고려할 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국채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무디스 측은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달 18일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애초 내년 10월에서 1년 반 늦추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해당 국가의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달러·엔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 재정리스크에 따른 달러·엔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며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달러·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가 환율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아베노믹스의 시련과 엔저 장기화의 파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일본 유권자의 과반수가 부동층인 것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중의원 선거까지 엔저 현상은 당선간 관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세간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경제 환경을 정비해 더욱 과감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中·日 펀드 "환매할까 보유할까"

전문가들, 내년까지 상승세 유지 전망

내년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펀드 투자자들이 잇따라 환매에 나섰다. 최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기회에 과거 금융위기 전후 발생한 손실 부담을 털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익률만 따져볼 때 내년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3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지난 한 달간 중국펀드에서 11억1000만 달러(약 1조2300억원), 일본펀드에서 28억8400만 달러(약 3조2000억원)어치가 빠져 나갔다.

최근 두 국가의 증시가 모두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지난 1개월간 13.7% 급등했고 홍콩H지수는 4.4%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7.6% 급등했다. 미국 S&P 500지수(2.4%)와 유럽의 유로스톡스50지수(4.0%), 인도(2.1%), 대만(1.3%) 등 다른 해외지역보다 호조를 보였다.

국내 펀드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해외주식형펀드에서 4000억원의 자금이 이탈한 가운데 홍콩H주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600억원으로 지역별 비중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중국본토펀드에서는 500억원, 일본에서는 240억원가량이 순유출됐다.

최근 어느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은 회복세를 보였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중국본토펀드 62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9.26%였다.

일본펀드 36개는 같은 기간 17.21%의 수익률을 올렸고 홍콩H주에 투자하는 펀드 85개는 9.77%의 성과를 냈다.

이 기간 해외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인 9.54%와 비슷하거나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혜택이 사라지는 '해외펀드 손실상계 제도'에 대응해 내놓은 환매 물량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여은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익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꽃 팔고 몇년 동안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증시가 상당히 오르자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세제 부담이 크지 않다면 어느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든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남중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 수요회복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또 내년 본토증시가 글로벌지수(MSCI) 편입될 수 있어 대외 자금유입 측면의 큰 그림에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은 이달 중순 총선 전까지 경계심리가 나타나겠지만 그 이후 반등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 정부가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내놨고 기업들 실적도 좋으므로 내년까지 대세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현정기자 kok.an@metroseoul.co.kr

하이-KRX 고배당지수 랩 출시

하이투자증권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하이 KRX 고배당지수 랩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10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KRX 고배당 50지수' 구성 종목을 편입한 뒤 배당지수를 추종하며 높은 배당수익률을 추구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관계자는 "배당주 투자는 마켓타이밍식의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KRX 고배당지수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KRX 고배당 50지수의 5년 누적 수익률은 95%로 같은 기간 KOSPI200(43%)의 두배를 웃돈다. 배당수익률 측면에서도 1%대 초반인 KOSPI200과 달리, KRX 고배당 50지수는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의 계약기간은 1년,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다.

/김현정기자

한·아세안 정상회의 교통사고 보상팀 운영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교통사고 보상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우근 삼성화재 보상기획팀 상무, 김진기 자법보상2팀 과장, 신승렬 현대해상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차사지원인원부장, 김원준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찰경호기획단 부단장, 김학현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부지원장, 이순지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부 부장, 김종호 자동차보상본부장 상무, 서명조 손해보험협회 보상사업부장. /현대해상 제공

'환 리스크' 우려 위안화 예금 판매 저조

환 위험 등에 따른 리스크 우려로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 잇달아 출시한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에 맞춰 나온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전망에 눈길을 끌었지만 결국 높은 환 위험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12일 3억 위안을 한도로 위안화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출시했지만 가입 좌수와 잔액(이하 1일 기준)은 90좌 1783만 위안(약 32억원)에 머물렀다.

하나은행의 특판 상품 또한 예금 잔액이 69좌 1570만 위안(약 28억원)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이 출시한 '차이나 플러스 외화정기예금'도 가입규모가 60좌 2767만 위안(약 50억원)에 그쳤고 우리은행의 판매규모도 달러화 환산 기준 335만2000 달러(596좌·약 37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적에는 지난달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년여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하고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전망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위안화 가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만기 시 환 차손 위험이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관련 예금상품과 채권 발행 등은 점차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나중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RQFII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위안화 채권 발행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의 양호한 위안화 공급 여건은 앞으로 위안화 금융상품시장의 성장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상민기자 ssm0888@

주요 은행, 연말 '금융교육'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 온라인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벌인다.

KB금융은 오는 18일까지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 하는 경제·금융 지식인 이벤트'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 온라인을 통해 매일 제공되는 경제·금융 관련 문제 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벤트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금융 지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는 KB금융공익재단 홈페이지(www.kbfoundation.or.kr)와 KB금융 경제금융교육 사이트(www.kbfg.com/kbresearch)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KB금융은 지난 2011년부터 경제·금융 교육을 그룹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문 초청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12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경제생활의 습관을 키워주고자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7~10세 어린이이며 12월 5일까지 전국 SC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13~14일 서울, 20일 경기 성남, 21일 부산 등 총 5회에 걸쳐 모두 5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계의 역사, 저축의 중요성, 용돈의 의미 등과 같이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김보배기자 nurse@

최근 서울 종로구 관극동 SC은행에서 모델들이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

삼성 신임 사장들 승진 소감

"사업 열심히 이끌겠다. 도와달라."

삼성그룹이 지난 1일 실시한 사장단 인사에서 새로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김현석 사장이 소감을 밝혔다.

김 사장은 사장단 인사 뒤 3일 서초사옥에서 처음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처음 참석했는데 많이 배웠다. (승진자들이) 돌아가면서 소감을 한마디씩 했는데 잘해줬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이어 "사업을 더 키워야한다"며 열의를 불태웠다.

또 다른 승진자인 삼성전기 이윤태 사장도 "열심히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지킨 삼성전자 CE부문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은 사장단 인사 뒤 첫 회의 분위기를 묻자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사장은 "내년 생활가전 1위 달성에 문제 없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 인사를 주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사장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센서부문 최고 권위자인 박태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영화 속 미래 기술과 창조'를 주제로 강연했다.

수요사장단 회의는 전문가를 초빙해 사장단에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교수는 "생명공학과 융합에 대한 얘기를 스파이더맨이나 쥬라기공원 등과 같은 영화에 빗대 설명했다. 사장들이 줄기세포와 관련한 질문은 많이 했는데 삼성이 바이오산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park@metroseoul.co.kr

삼성그룹 인사에서 승진한 계열사 사장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 처음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전동수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30대 그룹, 설비투자 10%↓

삼성전자 1위… 5~30위 투자 총액보다 많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30대 그룹의 설비투자가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254개사의 3분기 누적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조사한 결과 91조85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97조5000억원에 비해 5.8% 감소한 수치다.

반면 R&D 투자액은 26조4600억원으로 전년 25조원보다 1조4800억원이 늘었다. 불황 장기화로 대기업 그룹들이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에는 적극 나서는 것이다.

30대 그룹 중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올 들어 3분기까지 33조3700억원을 투자했다. R&D 투자는 13조3500억원에서 13조9800억원으로 4.8% 늘었지만 설비투자가 23조3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17% 줄었다.

2~4위는 SK, LG, 현대차등 재계 순위 4대 그룹이 나란히 차지했다. SK는 올 들어 투자액이 10조6700억원에서 12조9200억원으로 2조2500억원(21.1%) 증가했다.

LG는 전년보다 0.6% 소폭 늘어난 12조1600억원을 투자해 3위였고, 현대차는 9조1400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설비투자가 7조900억원에서 6조3500억원으로 10.5% 줄었지만, R&D 투자는 2조5600억원에서 2조7900억원으로 9.1% 늘렸다.

4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투자 감소폭은 훨씬 컸다. 4대 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1~3분기 투자액은 24조2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나 줄었다. /김태균기자 ksegel@

레이싱 게임 더 실감나게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한이음 엑스포 2014'에서 대학생들이 레이싱 게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감형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운드바 월 1만대 판매 돌파 삼성전자는 3일 TV 아래에 놓는 음향기기인 '사운드바'가 지난 10~11월 두 달 연속 월 판매량 1만대를 넘겼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드림클래스' 방과후학습 지원 왜?

기업들 사회공헌 36% '아동·청소년' 분야

현대모비스의 '주니어 공학교실', SK증권의 '청소년 경제교실',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의 공통점은 무얼까.

최근 우리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공헌 분야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14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36.2%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아동·청소년 분야에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인적자원이 국가의 미래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미래지원 육성방식은 연령별로, 기업별로 그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초·중생에게는 제조업 특성을 살린 현대모비스의 '주니어 공학교실', 금융업 특성을 살린 SK증권의 '청소년 경제교실' 등과 같이 과학·경제에 호기심을 키워주는 사업들이 많다.

삼성 드림클래스처럼 저소득 중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을 제공해 좋은 학교로의 진학을 돕는가 하면,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인 GS칼텍스의 '마음톡톡'과 같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서 함양사업도 하고 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이지무브'는 장애인 보조와 재활기구를 생산·판매함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SK는 프로보노 봉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에 자문을 해주고 있다. LG전자 역시 친환경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지원, 해외연수, 생산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www.icevalley.kr

밀양시

밀양이 춤춘다 밀양을 노래한다

제17회 밀양 얼음골 사과축제

The 17th Miryang Icevalley Apple Festival

일시 _ 2014년 12월 6일(토) ~ 7(일)

장소 _ 서울 청계천광장

주관 _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

후원 _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농협

12월 6일 _ 토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비보이와 밀양아리랑

밀양얼음골 홍보대사 (장미)

7080공연(전아름 전유나, 이정용과 휘버스, 우순실)

얼음골사과요리경연대회

12월 7일 _ 일

얼음골사과축제 참여이벤트(사과 무료증정)

밀양얼음골사과 서울나들이공연

러시아가수 나디아, Man3E, 여창민, OK, Love

할인판매, 무료시식회, 우수상품전시, 전체 체험 및 참여이벤트 등

밀양얼음골사과 드시러 오세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

태블릿도 LTE시대… 3G·와이파이 모델 비중↓

모바일 종시에 판매 증가… 지원 모델 잇따라 선봬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현존하는 이동통신 중 가장 빠른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갤럭시 탭S 광대역 LTE A를 지난달 출시했다 /삼성전자 제공

모바일 기능이 중시되면서 LTE 통신을 지원하는 태블릿PC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TE 태블릿은 LTE 상용화가 전 세계로 확대된 201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후 여러 업체에서 잇따라 출시했으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와이파이용 태블릿과 대화면 스마트폰의 인기에 밀려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태블릿이 아웃도어용 멀티미디어 기기로 떠오르면서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누릴 수 있는 LTE 태블릿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3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태블릿 가운데 LTE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내년 LTE 태블릿의 판매 비중은 3%포인트 넘게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3G 태블릿은 처음 출시된 2010년 판매 비중이 27%였으나 2012년 12%까지 추락한 데 이어 올해는 9.4%에 그쳤다. 와이파이 태블릿의 올해 판매 비중 역시 73%로 작년보다 4.4%포인트 떨어졌다. SA는 2018년 LTE 태블릿의 판매 비중이 약 23%로 늘어나면서 3G 태블릿(8.6%)의 2배를 훨씬 웃돌 것이며 와이파이용 태블릿도 6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들도 다시 본격적으로 LTE를 지원하는 태블릿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현존하는 이동통신 중 가장 빠른 광대역 LTE A를 지원하는 갤럭시 탭S 광대역 LTE A를 출시했다. 광대역 LTE A는 이론적으로 최대 225Mbps의 속도를 지원하며 기존 LTE보다 속도가 3배 빠르다.

레노버도 지난 10월 태블릿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업무용에 최적화된 요가 태블릿 2 10인치 모델에 LTE 기능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커버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기본 제공하고 윈도 OS나 안드로이드 OS 중 선택 가능한 점 등 태블릿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직장인을 겨냥했다.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앞세워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LTE 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LTE 태블릿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화웨이는 이미 LTE를 지원하는 태블릿 '미디어패드 M1'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쿼드코어 기린 910 프로세서와 SWS 스테레오 기술이 탑재됐으며 글로벌 로밍을 지원한다. 샤오미의 LTE 태블릿도 출시가 임박했다. 외신에 따르면 샤오미가 준비 중인 '미패드 7.9'의 자기 모델이 지난달 말 중국 전파인증기관인 공업정보화부의 LTE 인증을 통과했다. 이 제품은 사양이나 기존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면 599위안(한화 약 11만원) 수준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진 기자 hans0405@metroseoul.co.kr

"내년에 신차 3~4종으로 돌풍"

정우영 혼다 사장

혼다 코리아가 내년도에 신차 3~4종을 선보이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펼친다.

3일 혼다 코리아 뉴 CR-V 발표회에서 기자와 만난 정우영(작은 사진) 사장은 "내년도에는 신차 3~4종을 추가하면서 올해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면서 "디젤과 하이브리드 등 새 모델을 추가하면서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영 사장은 CR-V 디젤 외에는 구체적인 모델 언급을 자제했으나 몇 가지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우선 소형 SUV인 HR-V 도입이 유력하다. HR-V는 CR-V 아래에 자리하는 도심형 SUV로, 닛산 쥬크와 경쟁하는 차다. 미국 출시형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링크를 비롯해 SMS 문자 메시지 기능,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레인 워치 등 다양한 기능을 장착하고 있어 CR-V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혼다 관계자는 "HR-V는 미국에서 내년도에 출시되므로 현재로서는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도입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 외의 모델 추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미 혼다 라인업 중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어코드 쿠페, 어코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소형차 피트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 2만9305달러부터 시작해 3만5055달러까지 3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어코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는 3만9780달러로 조금 비싸지만 연비가 무려 48.9km/ℓ(미국 EPA 기준)에 이른다. 내년에는 현대차가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혼다가 어코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혼다는 내년에 신차를 대거 쏟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계획이어서 향후 수입차시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욱 기자 [illegible]

HR-V

SKT 중장년층 스마트폰앱 'T청춘' SK텔레콤은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청춘'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T청춘은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7080가요·트로트 골든팝 등의 음악서비스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SKT 제공

'유료방송 합산규제' 또 해 넘기나

KT '덤핑' 영업 후폭풍 우려 목소리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결국 또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러다 자칫 법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법안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상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합산규제 법안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 IPTV에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 등 모든 서비스를 유료방송으로 포함시켜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서비스하는 KT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연기되자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KT가 합산규제 법안 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을 덤핑 가격으로 제공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KT동부산지사는 최근 부산 거제동의 일부 아파트에 월 이용요금 6600~7000원에 디지털유료방송을 제공하겠다는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를 발송했다. 제안서에는 KT가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를 구축하고, 개별계약 시 월 이용요금을 6600원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1개 상품에 가입하면 거실, 안방 등 가정에 보유한 추가 TV에 대해서도 디지털방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제안을 받은 곳은 거제동 ㅇ아파트, ㄷ아파트, ㅎ아파트 등 총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는 KT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33%를 넘겨 향후 규제개선 논의 시 '3분의1로 규제하면 멀쩡한 가입자를 강제로 해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기 위한 '속도전'"이라며 비난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공기업·신탁사 아파트도 '이름 짓기'

전문적 이미지 심어줘 신뢰성 향상 도움 판단

2000년 '래미안' 론칭 이후 아파트 브랜드가 일반화되면서 민간건설사가 아닌 공기업과 신탁사도 브랜드 짓기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현실을 감안해 공기업 등도 민간건설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산에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업계 최초로 '코아루'라는 브랜드를 사용 중에 있다. 코아루는 한국(코리아)의 아름다운 집(樓) 다락 루를 의미한다. 우리 전통의 붓글씨 서체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해 멋은 디자인했다.

코아루는 특히 충청권에서 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 코아루, 충남 당진 시 삼봉동 '신평 코아루' 등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선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둔 충주 첨단산업단지 '충주 코아루 퍼스트'에는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천년나무'를 아파트 서브 브랜드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메인 브랜드 LH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천년나무는 오래도록 변함없는 집에 대한 가치를 상징하며 영속성, 편안함, 지속적인 성장, 튼튼함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LH가 입주민 가정에 신뢰, 행복, 희망을 심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오랫동안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자연&'(자연앤)이라는 브랜드를 사용 중이다. '자연&'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주거 공간을 상징한다. 자연 안에서 살아가면 건강함은 지니게 되고 이는 곧 삶을 실현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웰카운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웰카운티는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웰(Well)과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카운티(County)의 합성어다. 도심 속 공동체 가치를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 풍요로운 주거문화를 창조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역시 '트리플시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었다. 2007년 도안신도시 9블록 분양부터 쓰이기 시작한 '트리플시티'는 2009년 도안신도시 5블록과 11월 건본주택을 열고 분양중인 대전 노은3지구 '트리플시티 포레'로 이어지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건설사 외 공기업, 신탁사 등에서 아파트 브랜드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이미지 향상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쉬워"이라며 "브랜드 파워 여부에 따라 분양실적이나 성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현육기자 yoo@metroseoul.co.kr

2015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10월	2014년 연간e)	2015년e)
매매	전국	1.4	0.3	1.4	1.7	2.0
	수도권	-4.3	1.1	1.2	1.5	2.0
	지방	1.3	1.7	1.3	1.8	1.5
전세	전국	1.4	4.7	2.5	3.2	3.5
	수도권	0.6	6.2	4.0	4.5	5.0
	지방	2.6	3.4	1.3	2.1	2.0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했으며 e)는 연구원의 추정치임 (단위: 전기말 대비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내년 수도권 매매 2%·전세가 5% 상승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이 3일 내년 우리나라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2015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 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올 하반기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월세가격은 초소형 주택의 과잉공급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2015년 주택 거래전망 BSI가 수도권 128.4, 지방 109.1로 수도권은 올해보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던 지방은 가격조정기 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지방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여건분석과 자기자본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이후 금융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회복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전월세시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세시장 정책은 일반 서민층이 거주하는 전세주택과 주택매매를 유보하고 있는 계층의 고가 전세주택을 구분하여 정부의 정책대상 계층을 명확히 구분해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민간임대시장의 운영소득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 준공공임대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20~30대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불안정과 주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소득 1~2분위의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금리인상 영향이 회복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탁기자 kdt@

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 LH 규탄

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도로 부실시공을 규탄했다. /뉴시스

헷갈리는 '전매 제한'…6개월서 최대 6년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 간소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지역, 택지 종류, 공급 주체 등에 따라 전매 가능 여부와 시기가 모두 다르다.

현행 전매제한 제도

구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공공 6년, 민영 3년
	70~85%	공공 5년, 민영 2년
	85% 이상	공공 4년, 민영 1년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85㎡ 이하 5년, 초과 3년	
	민간택지 6개월	

*수도권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지방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없음

전매제한 시기를 계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공급 주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에 이른다.

지난 9월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6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85%는 5년, 85% 이상은 4년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민영주택은 70% 미만 3년, 70~85% 2년, 85% 이상 1년으로 짧다.

그린벨트 이외 지역이라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공공택지인 경우 수도권·지방 공통적으로 1년이지만 민간택지는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 공공택지는 85㎡ 이하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면적 구분 없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지역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담당자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어느 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현육기자

홈플러스 '나눔과 감동의 페스티벌'

먹거리·생필품 최대 50% 할인… 이익금 소아암·유방암 환자 지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4일부터 31일까지 '나눔과 감동의 페스티벌' 행사를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전 점포와 몰(Mall)·온라인·SNS 등 전 채널을 활용해 연말 시즌 사상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고, 임직원과 고객, 협력회사와 함께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회사 측은 일반적인 유통행사와 달리 '나눔과 감동'이라는 타이틀로 행사상품 매출액 일부를 유방암과 소아암 치료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쇼핑하는 것만으로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착한 소비' 문화를 마련하고, 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 '나눔 플러스 봉사단' 출범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이 기간 핵심 신선식품 할인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사전예약 최대 50% 할인 ▲대한민국 대표 상품전 ▲겨울 상품 최대 50% 할인전 등을 마련했다.

삼겹살·목심·딸기·밀감·바나나·파프리카·한우·꽁거리·훈제곡·오색현미·청포도 등 대표 먹거리를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10일까지는 케이크·킹랍스터·크레이피시·완구 등 크리스마스 시즌에 구매하기 어려운 인기 상품들을 사전 예약판매를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 생수·치즈·화장지·섬유유연제·샴푸·간장 등의 등 주요 생필품은 1+1 판매한다.

와이니스트 와인 행사 상품 3병 구매 때 50% 할인, 소스·파스타·치즈 2개 구매 때 30% 할인, 굴·홍게·석화 등 전국 유명산지 대표 특산물전, 스팸·너구리·조코파이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대한민국 100대 대표 상품전도 준비했다.

전국 홈플러스 몰에서는 160여개 브랜드 패션 잡화를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는 20일까지 유명 브랜드 명품 잡화를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Black Gift Days 기획전을 연다. 11일부터 24일까지는 주방가전·베이비용품 300여 종을 최대 65% 할인전 등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이번 '나눔과 감동의 페스티벌'은 상품 프로모션과 사회공헌활동이 결합된 대규모 캠페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240여 개 협력회사가 동참해 1000여 가지 행사상품 매출 일부를 소아암 어린이 치료 지원에 사용한다. 70여 종의 행사 생필품 매출 1%는 소외계층의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다. 유방암과 소아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음악회'도 마련됐다. 21일까지는 케이크 판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전국 점포 인근 어려운 이웃에게 케이크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홈플러스의 '나눔 플러스 봉사단'을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 연탄 나르기, 김장 담그기 등 12월 한 달간 1만 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10,000℃의 열정' 캠페인을 펼친다.

SNS를 통한 사회공헌 이벤트도 전개해 홈플러스 공식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에 응원 댓글이 달릴 때마다 2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총 1만개 댓글이 달리면 소아암 어린이 치료와 유방암 환자 재건수술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홈플러스 공식 블로그에서는 나만의 건강 비법을 댓글로 남긴 고객 100명에게 유방암 검진권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jyme@metroseoul.co.kr

유아용품 업계 '공식 카페·서포터즈'

온라인 홍보 활용… 고객 확보 효과도

유아용품 업계가 공식 카페·블로그와 서포터즈 등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반응도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와이케이비앤씨(YKBnC)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체험 프로그램을 서포터즈로 통합해 이번에 새롭게 모집했다. 약 일주일 간 모집에 1/1나는 240명, 소프트맥스는 1187명이 몰렸다.

공식 카페와 블로그는 유아용품 업계의 전통적인 홍보 채널로 굳어졌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모임 장소를 제공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정보는 대체로 제품과 연계된다.

최근에는 엄마들의 니즈를 파악해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벤트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에어원베이비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연 공모 형식의 이벤트를 실시했다. 사연을 공개를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부터 공식 카페 '쁘레베베 프렌즈'를 운영해온 쁘레베베는 4600여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제품 리뷰를 남기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이 카페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SNS 채널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수정기자 ksj@metroseoul.co.kr

립톤 아이스티 '서든어택' 아이템 증정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내년 2월 28일까지 '립톤 아이스티' 구매 때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아이템을 100%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전국 PC방과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서든어택 캐릭터가 인쇄된 립톤 아이스티 355㎖ 캔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의 뚜껑 안쪽 8자리 코드를 서든어택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女)도둑 캐릭터 또는 15(무한총알 및 소음기 기능)등급의 인기 무기인 AK47·TRG21·M4M1 아이템 중 1가지를 랜덤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국민 에케깃 1일권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연말연시 독서로 힐링하세요"

길벗 '우주비행사 지구생활안내서' 등 증정
스트레스 없애주고 차분한 새해맞이 도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회식 등 모임이 많지만 내적으로는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새 희망을 품어보는 '힐링 타임'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도서출판 길벗과 '하루30분 스마트폰 끄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농부가 된 도시사람들'과 '우주비행사의 지구생활 안내서'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농부가 된 도시사람들'은 귀농 5년차 새내기 농부부터 20년차 베테랑 농부까지 개성만점 7인 7색의 농부들이 언제나 헷갈리고 어려운 토지구매에서부터 ▲각종 정부지원금 ▲작물재배법 ▲판로&마케팅 ▲텃세 극복법에 이르기까지 초보 농사꾼을 위한 귀농의 모든 것을 담았다.

'우주비행사의 지구생활 안내서'는 캐나다 출신 우주비행사인 크리스 해드필드가 9살에 품은 우주비행사라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도전의 여정을 그리면서 비행사의 일상과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편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이달 21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 6팩 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 10팩·20인분) 1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또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잦은 술자리… 내게 맞는 숙취 해소제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류업계가 눈코 뜰 사이 없이 제품 생산에 몰두하면서 바늘과 실 처럼 숙취 해소제 업계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런 가운데 숙취해소 업계 후발 업체들이 과거 남성소비자 중심으로 한약재를 주 원료로 했던 숙취해소제에서 벗어나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과일맛을 첨가하는가 하면 젤리형은 물론 과립이나 알약(환) 등으로 제품 형태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왼쪽부터) 하이트진로음료 '술깨는 비밀', 삼양사 큐원 '상쾌환', 디알엑스플러스 '우콘파워'

하이트진로음료의 '술깨는 비밀'은 숙취해소 효과가 탁월하고 포도당·단백질·비타민이 풍부한 마를 주원료로 헛개나무열매 추출물과 L-아스파라긴 등을 사용해 숙취와 취기를 유발하는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동시에 분해하는데 노움을 준다.

삼양사 큐원의 '상쾌환'은 환 형태의 숙취해소제이다. 숙취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간에서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 글루타치온을 함유한 효모추출물분말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디알엑스플러스가 선보이고 있는 '우콘파워'는 과립 형태의 제품으로 100% 인도산 울금을 활용해 만든 제품이다. 울금 특유의 흙 냄새와 쓴 맛을 완전 억제한 상큼한 맛의 스틱 타입 제품이다.

/정영일기자

화려한 클럽파티엔 '글램컬'

연말 모임 장소에 따른 헤어스타일링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 완벽한 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의상뿐 아니라 헤어 스타일링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헤어스타일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바비리스가 집에서도 손쉽게 연출할 수 있는 T.P.O에 맞는 셀프 헤어 스타일링 제안했다.

◆클래식한 와인바 '포니테일'

우아한 분위기의 와인바를 모임 장소로 골랐다면 깔끔하게 정리된 포니테일 스타일로 단아한 매력을 어필하는 게 좋다.

모발을 전체적으로 자분하고 윤기있게 정돈한 후 귀 옆 부분의 모발을 소량 빼내 남겨두고 나머지 모발을 정수리 부위에서 하나로 모아 고무줄로 묶어준다. 남겨둔 옆머리를 고무줄 위로 둘러 감아 고무줄을 감추고 핀으로 고정한다. 하나로 묶은 모발 끝 부분에 굵은 웨이브를 넣어주면 여성스러움에 우아한 품기는 포니테일 헤어 스타일 완성이 완성된다.

◆클럽갈 땐 '캐런된 웨이브'

클럽 파티에 갈 때는 화려한 스타일이 정답이다. 모발 전체에 적당한 층을 만들고 세련된 웨이브를 넣어 글램컬을 추천한다.

어두운 조명과 화려한 의상에는 모발 중간에서 시작되는 웨이브 스타일이 제격이다. 신나게 춤출 때 가볍게 흩날리는 웨이브 헤어가 뭇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스타일링기로 컬을 만들고 웨이브를 고정시킬 스프레이를 뿌린 후 손가락으로 흐트러뜨리면 된다.

◆홈파티 '내추럴 볼륨 스타일'

집에서 지인들과 즐기는 홈파티에서는 꾸미지 않은 듯 신경 쓴 스타일이 적당하다.

모발을 가로로 섹션을 크게 나눈 후 헤어기기를 사용해 뿌리 쪽부터 풍성한 볼륨을 넣어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잔머리를 정리하고 모발 끝부분은 안쪽 방향 컬과 바깥쪽 방향 컬을 섞어 연출하면 더욱 세련돼 보인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주방용품 업계의 텀블러 사랑

상품 구색 넓혀 젊은층 고객 확보 나서

용기 등에 집중해왔던 주방용품 업계가 텀블러 경쟁에 뛰어들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커피전문점이 할인 정책을 펼치면서 텀블러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젊은층 고객을 확보에도 텀블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텀블러가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에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며 "텀블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써모스 등 텀블러에 강점을 가진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업계가 텀블러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락앤락 굿그린은 '미니 텀블러'(사진)를 출시했다. 홀드 부분 역시 실리콘 처리가 돼 있어 용기를 잡을 때 그립감이 좋고 구성품이 분리가 돼 깨끗한 세척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헤드 부분은 3중 실리콘으로 처리돼 액체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밀폐 용기 사업에 집중해온 락앤락도 올해 텀블러 상품 구색 확대에 집중했다. 최근에는 '카페 텀블러'를 출시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텀블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배우 이종석을 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한다.

네오플램은 '머그 프리미엄 보온 보냉 텀블러'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이중벽 사이에 특수 코팅 처리가 돼 있어 보온력이 뛰어나 커피·차 등을 휴대하면서 마시기 좋다.

/김수정기자 ksj@metroseoul.co.kr

뷰티·생활용품 '무첨가' 바람 분다

무실리콘 샴푸·무파라벤 치약 등 천연유래 성분 제품 인기

최근 화학 첨가제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식품뿐 아니라 샴푸·치약 등 뷰티 생활용품에도 특정 성분을 넣지 않은 '무첨가' 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샴푸다. 샴푸 시장에서는 석유 추출물인 '실리콘'을 뺀 내추럴 샴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조사기관 AC닐슨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무실리콘' 내추럴 샴푸의 시장점유율은 9%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1%와 비교해 8%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무실리콘 샴푸는 팬틴의 '프로브이 아쿠아 샤인', 애경의 케라시스 네이처링,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 오가니스트, 아모레퍼시픽의 캐피타스 퓨어네이처 등으로 대형할인점에서 '내추럴' 카테고리로 분류돼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치약 시장도 마찬가지다. 애경은 얼마 전 국정감사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거론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을 아예 뺀 '2080 진지발리스 프로텍트 2080 K' 치약을 출시했다. 대신 천연 항균 성분인 징코빌로바 추출물을 활용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먹거리와 직접 닿는 주방세제에서도 파라벤류를 쓰지 않고 시당수수와 올리브 등 천연 유래 성분으로 안심설거지가 가능한 세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과거 업체들이 제품에 들어간 특정성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된 특정성분을 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기자

드러그 스토어 '반값 세일' 돌입

올리브영 등 50% 할인

올리브영과 왓슨스 등 드러그스토어가 연말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반값 세일' 경쟁에 나섰다.

헬스 뷰티 전문점 올리브영은 개장 15주년을 맞아 3일부터 7일까지 '올리브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품목은 주로 향수 화장품 등 올 한해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로 구성됐으며 할인 폭은 최대 50%까지다. 특히 향수의 경우 개장 이래 가장 많은 품목이 포함된다.

메디힐 키스미 미장센 엘르갈 페라가모 향수 등은 최대 50%, 클리오 페이스인페이스 메이블린 로레알·라벨·불가리 버버리 향수 등은 최대 40% 싸게 판매한다.

세일 기간에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앱 전용 20% 할인쿠폰을, 모바일앱 첫 구매고객은 3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왓슨스도 같은 기간 1만여 개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겟 스페셜' 행사를 벌인다.

쏘피 사이오스 엘라스틴 리엔 프레쉬라이프 등의 상품은 최대 50%, 로레알·메이블린 나오벨 구달 싸아닉 등은 최대 40% 할인한다.

/서지원기자

제일모직 '슈퍼프라이데이'

"옷 사면 TV 드려요."

제일모직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와 '슈퍼프라이데이'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5일부터 28일까지 남성복 빈폴 여성복 해외상품 등 전국 1500여 개 매장과 공식 쇼핑몰에서 단골으로 7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삼성전자 32인치 LED TV(스탠드형/1000대)·소형 세탁기(아가사랑/1만대)·청소기(모션 싱크/1만1000대) 중 1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5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이들 사은품과 갤럭시 탭 4(1000대) 중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서지원기자

추운 겨울 낙상주의보!

노안층 조심… 예방이 최선의 지름길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눈 또는 비로 낙상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낙상은 넘어져서 다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노인 중 30%가 1년 중 한 번 정도 낙상을 당할 정도로 노인한테 흔하게 나타나며 남자보다는 여자 환자가 약 2배 정도 많다.

주로 엉덩이나 손목 부위의 부상이 많으며 타박상은 물론 심하면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손상으로 인한 후유 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낙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또 강추위가 예보되거나 눈비로 인해 주변환경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너무 두꺼운 옷은 몸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내의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신발은 미끄러운 구두보다는 등산화가 적합하며 장갑과 모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낙상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지럼증이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 혈압으로 인해 장기간 약을 복용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는 물론 평소 음주를 즐기는 사람도 낙상을 조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도록 평소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자전거 등의 운동이 추천되며 실내에서는 탄력밴드를 활용한 운동이 적합하다.

김윤택 국립교통재활병원 전문재활센터 교수는 "겨울에는 낙상 환자가 많다. 가벼운 낙상 후에도 통증이 2~3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국망막학회는 연령대에 따라 주의해야 할 망막 질환이 다른 점을 발표하며 안과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20대 망막박리 주의해야

학회, '연령대별 주의할 4대 질환' 발표

실명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주요 망막 질환이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망막학회(회장 김시동)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 100건의 대한안과학회지 논문과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0~20대는 망막박리를, 30~40대 당뇨병 환자는 당뇨망막병증을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50대는 망막정맥폐쇄를, 60대 이상은 황반변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0~20대의 망막박리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33.8%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환자는 동기간 50.9%나 급증했다. 게다가 전체 망막박리 환자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5%나 됐다.

30~40대 젊은 당뇨병 환자는 당뇨망막병증을 주의해야 한다. 30~40대 당뇨병 환자 10명 중 1명이 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50대 망막정맥폐쇄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32.1% 증가했다. 50대 이전 망막정맥폐쇄 환자 수가 동기간 4.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인 셈이다.

노인들은 황반변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황반변성 환자 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이며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5년간 60세 이상 환자 수가 53.3%나 증가한 실정이다.

이 학회 김시동 회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망막 질환이 무엇인지 확인됐다"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식습관 변화 등으로 망막질환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출산의 기쁨보다 큰 산후 관절통?

무릎·허리에 부담 커… 반복적인 자세 피해야

출산 후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이 아프거나 특정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출산 후에는 적절한 산후관리를 통해 관절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후 관절통은 분만을 촉진하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릴렉신은 출산할 때 골반 주위의 관절뿐만 아니라 온몸의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관절과 인대는 느슨해졌다가 출산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임신 중에는 무릎을 조심해야 한다. 보통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전달되는 부하는 3~4kg씩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임신 중에는 무릎에 무리가 오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 연골연화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출산 후 모유 수유할 때나 아기를 목욕시키는 등 허리의 반복적인 사용도 관절통을 증가시킨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이런 질환을 앓고 있던 산모들은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특히 누워있는 아기를 허리만 굽혀서 안아 올리는 동작은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몸 쪽으로 아기를 당겨 안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아기를 같은 자세로 안을 경우에는 어깨관절이 굳고 염증이 생기는 오십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온찜질과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김우 날개병원 원장은 "출산 전후로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동국제약 '사랑의 송년 음악회'

소아암 환자들과 가족 초청… 후원금 전달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백암아트홀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제5회 사랑의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동국제약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환아와 가족들을 초청해 음악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희태 지휘자와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평소 익숙한 클래식을 연주했다. 협연자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는 영상과 그림을 배경으로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하는 이색적인 연주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동국제약은 공연장 입구에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했으며 추운 겨울철 입술 보호에 유용한 '마데코밤'을 방문객들에게 증정했다.

/황재용기자

JW중외제약, FMCK와 협력계약 체결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이 신장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JW중외제약은 최근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Fresenius Medical Care Korea)와 '국내 신장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하고 그 첫 단계로 '혈액투석액 분야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첫 번째 계약을 통해 JW중외제약은 2015년 1월부터 혈액투석액 제품인 '헤모트레이트 SR' '헤모비애스' 등을 JW당진생산단지에서 생산하게 됐다.

이 회사 한성권 사장은 "이번 협력은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 제품개발력과 생산능력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데뷔 10년 앞둔 윤상현, 그의 사랑과 연기

메이비와 깜짝 결혼 발표 "편안하고 좋아지니 확신 생겨"

'덕수리 5형제'로 스크린 컴백 "다양한 캐릭터 욕심나죠"

"인생을 재부팅하는 느낌, 물 흐르듯 천천히 작품할래요"

"제 결혼 소식이 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일 줄 몰랐어요. 그냥 하루 정도 이슈가 되고 말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즐겁고 행복합니다."

2014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배우 윤상현(41)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연말을 보내고 있다. 4일 개봉하는 영화 '덕수리 5형제'로 오랜만에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는 최근 가수 겸 작사가 메이비와의 결혼 발표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영화 홍보와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특유의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환한 웃음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 메이비와의 첫 만남, 그리고 결혼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되는 스타에게 연애와 결혼 같은 사생활은 선뜻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이다. 윤상현과 메이비의 결혼 발표가 화제가 된 것은 열애설을 곧바로 인정한데다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발표한 당당함 때문이었다.

"결혼까지 남아 있는 두 달을 재미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때마침 '힐링캠프' 출연 제안을 받았죠.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작가들에게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녹화가 끝난 뒤 게스트로 나왔던 (김)종규 형이 '피노키오' 촬영장과 나 혼자 산다' 녹화 현장에서 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어요(웃음)."

결혼 발표도 당당했던 만큼 그 동안의 러브 스토리도 솔직하게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6월 종영한 드라마 '갑동이' 촬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전까지는 메이비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매니저가 처음으로 소개팅을 주선해 줘서 만나게 됐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건강미 있고 통통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니 웃는 인상이라서 좋았어요. 편안함이 있었죠. 드라마를 마치고 7월 말부터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만날 때마다 느낌이 좋더라고요. 편안했고 좋아지니까 같이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결혼도 솔직하게 발표한 만큼 결혼식도 특별한 형식으로 준비 중이다. "팬들도 함께 다 즐길 수 있는 콘서트 형식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막상 준비하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어쩌면 디너쇼가 될 수도 있고요(웃음). 저도 노래를 부르고 메이비도 노래를 부르려고 계획 중입니다."

◆ 데뷔 10주년, 식지 않는 캐릭터 욕심

결혼 발표로 화제가 됐지만 윤상현이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선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자신이 주연을 맡은 두 번째 영화 '덕수리 5형제'(감독 전형준)가 개봉하기 때문이다.

'덕수리 5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일쑤인 다섯 형제가 갑작스럽게 실종된 부모의 행적을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스릴러 영화다. 윤상현은 "제목에서 '빵' 터졌다"며 "시나리오가 흥미롭게 읽혀서 선택했다"고 밝혔다.

극중에서 윤상현은 다섯 형제 중 장남인 수교 역을 맡았다. 윤리 선생님답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인물이다. 그 동안 반듯한 인물을 주로 연기해온 그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였다.

"대작이든 저예산 영화든 상관없이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한 번 연기한 역할은 어쩌해도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송새벽이 연기한 동수 역으로 바꿔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래도 감독님의 고집은 꺾을 수는 없더라고요(웃음)."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선보여온 윤상현은 유독 영화에서는 코미디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 전작 '음치클리닉'도 그의 코믹 변신으로 화제가 됐다. 윤상현은 "'갑동이'를 하면서 무거운 주제의 작품보다 사람의 희로애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더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즐거운 영화나 드라마가 더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보다 소재와 이야기의 폭이 넓은 영화를 통해 더욱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윤상현은 내년이면 배우 데뷔 10주년을 맞이한다. 결혼까지 앞둔 만큼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상현은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물 흐르듯 천천히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인생을 재부팅하는 느낌이에요. 결혼도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흐르듯 들어오는 작품들을 주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1번가의 기적'의 임창정 선배나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선배 같은 역할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물론 당분간은 쉴 생각입니다. 메이비와 연애도 오래 못한 만큼 결혼한 뒤에는 둘이서 함께 여행을 다닐 계획이거든요(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더블드래곤) 디자인/박은지

"'피노키오' 흥행 비결은 박신혜"

박신혜 "'식빵 키스' 생각보다 섹시해서 놀라"

배우 이종석이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의 흥행 비결로 파트너 박신혜를 언급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피노키오'는 시청률 10.4%(닐슨코리아·전국 가구)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방송 중인 MBC '미스터 백'(10%)과 KBS2 '왕의 얼굴'(4.2%)을 제쳤다. 이날 '피노키오'는 '미스터 백'과의 경쟁에서 처음 우위를 차지했다.

3일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종석은 "박신혜가 예쁘게 나오는 것이 한몫했다"며 시청률 반등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자세가 좋고 생활감이 있다"며 "최공필(신정근)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바지춤을 채운다라는 지문이 있을 정도로 대본이 촘촘하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하는 캐릭터가 저마다 사랑스럽다"며 "특히 박신혜의 경우 함께 광고도 찍어봤고 전작들도 다 봤는데 그때는 예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피노키오'에서는 정말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SBS 수목극 '피노키오' 이종석·박신혜·이유비·진경·김영광(왼쪽부터). SBS 제공

박신혜는 "시각적인 재미가 있고 빠르게 화면이 전환돼 리듬감이 있다"고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진경은 "시청층이 두텁다. 청춘 로맨스와 묵직한 사회 이슈가 동시에 생각하며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비는 "갓(GOD·신)이라는 뜻에서 빌려온 신조어로 '최고'를 의미한다)수원, 갓혜련, 갓종석, 갓신혜의 힘이다. 감독님의 연출, 작가님의 필력, 배우들의 영향력에 묻어가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광도 "감독과 작가의 힘, 이종석과 박신혜의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시청자가 소재에 신선함을 느꼈고 빠른 전개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석과 박신혜는 방송에서 화제가 된 '식빵 키스' 뒷이야기도 전했다.

이종석은 "촬영할 때는 담담하게 찍었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지 몰랐다"며 "감독이 멜로 느낌이 나게 느끼하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연기했다"고 말했다.

박신혜는 "감독이 '너희 둘 다 연애 안 해봤냐'고 했다. 방송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섹시하고 야릇하게 나와서 우리가 찍은 장면이 맞나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피노키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춘들이 진정한 기자가 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과정을 담는 드라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조수원PD-박혜련 작가가 함께 제작 중이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현숙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토크쇼 '빨간 의자' 시즌3 방송

결혼 앞둔 김경란 MC 발탁 시청률 기대

tvN 명사 토크쇼 '고성국의 빨간 의자(이하 빨간 의자)'가 시즌3으로 시청자를 다시 찾는다.

'빨간 의자'는 정치·경제·종교·문화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게스트로 초대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빨간 날'을 선정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지난 시즌에는 첼리스트 정명화를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함승희 전 검사 등이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빨간 의자' 측은 3일 시즌3의 출발을 알리며 김경란(오른쪽 사진)을 새 MC로 발탁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단아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김경란은 정치평론가 고성국(왼쪽)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진행으로 게스트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제작진 측은 "'빨간 질문'이라는 코너를 신설했다. MC 고성국이 준비된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게스트와 뜨거운 맞장 토론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빨간 의자' 시즌3은 10일 tvN을 통해 첫 전파를 타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50분 방송된다.

/김학철기자 [illegible]

영화 '기술자들'

KBS2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조윤희 극과 극 변신

드라마 '왕의 얼굴'·영화 '기술자들' 활약

배우 조윤희가 올 연말 드라마와 영화에서 맹활약한다.

조윤희는 KBS2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에서 조선시대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김가희 역을 맡고 있다.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기술자들'에서는 홍일점으로 출연해 청순한 이미지를 벗을 예정이다.

조윤희가 '왕의 얼굴'에서 분한 김가희는 여인으로 살면 불운한 관상을 타고나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비운의 인물이다. 두 마리의 용을 섬기는 관상도 지닌 그는 관상에 대해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는 선조(이성재)와 선조의 아들이자 첫사랑인 광해군(서인국) 두 남자 사이에서 삼각 로맨스를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에서 김가희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싸우는 도치(신성록)와 함께 대동계를 이끄는 여전사로 변신했다. 특히 수준급 활 쏘기 실력을 선보이며 "대등한 세상을 꿈꾸셨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의를 위해서 내 남은 생을 걸겠다. 눈앞의 김도치가 내 오라비요, 내 길잡이다"라고 각오를 다져 극의 긴장감을 더했다.

드라마를 통해 '예쁜 남장'으로 화제를 모은 조윤희는 영화 '기술자들'에서 세련된 여성 '은하'로 변신한다.

아트갤러리에서 근무하는 은하는 외모는 물론 사연 수완까지 갖춘 인물이다. 갤러리에 거액 투자를 제안하는 지혁(김우빈)을 만나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에 휘말리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조윤희는 예술적 감각이 상당한 은하를 연기하기 위해 옷차림부터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말투 등을 고급스럽게 표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왕의 얼굴'과 '기술자들'로 시청자와 관객을 만날 조윤희는 극과 극 장르인 사극과 현대물에 도전해 배우로서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각오다.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 측은 "드라마와 영화 속 조윤희의 다른 매력을 보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현숙진기자

SCREEN

HUGH JACKMAN | RUSSELL CROWE | ANNE HATHAWAY | AMANDA SEYFRIED | EDDIE REDMAYNE | with HELENA BONHAM CARTER | and SACHA BARON COHEN

SCREEN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레미제라블

tcast

12월 24일 [수] 밤 11시 TV최초

앤씨아 '초통령' 등극 임박

벼락맞은 문방구2 이어 캐릭아일랜드2 출연

가수 앤씨아(사진)가 초등학생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 전문 방송 채널 '투니버스'에 연이어 캐스팅된 것이다.

앤씨아는 오는 10일부터 방송되는 투니버스의 게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캐릭아일랜드 시즌 2'에 출연한다.

지난 7월 방영 이후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 온 '캐릭아일랜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원성취단이 게임을 통해 시청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앤씨아는 투니버스 '벼락맞은 문방구2'로 연기 신고식을 치렀다. 7월 첫 방송된 이후 10주 연속 케이블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앤씨아는 극중 번개가 칠 때마다 나타나 번개 탐험단을 돕는 문방구 누나 썬더키티 역을 맡아 어린 시청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앤씨아는 지난해 데뷔 곡 '고생했어'로 상큼한 무대를 펴 삼촌팬을 모았다. 이어 투니버스 프로그램의 연이은 출연으로 초등학생 팬까지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에게서 사랑 받을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앤씨아가 출연하는 투니버스 '캐릭아일랜드 시즌2'는 오는 10일 오후 5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겨울에 찾아온 성시경의 감성 발라드

신곡 '잊지 말기로 해' 발매와 동시 음원차트 석권

겨울과 함께 찾아온 성시경의 감성 발라드가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성시경이 3일 자정에 발표한 신곡 '잊지 말기로 해'가 발매와 동시에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멜론·엠넷·지니·올레뮤직·몽키3·네이버뮤직·다음뮤직·싸이월드뮤직·소리바다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잊지 말기로 해'는 오는 9일 자정 발매를 앞두고 있는 성시경의 스페셜 앨범 '윈터 원더랜드'의 선공개곡이다. 최근 토이의 새 앨범 '다 카포'에 참여하며 가요계 뮤즈로 떠오르고 있는 권진아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윤필순이 작사하고 김현철이 작곡한 이 노래는 이문세, 이소라 등 유명 가수들이 먼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다. 이번에 발표된 '잊지 말기로 해'는 성시경의 감성적인 보컬과 권진아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만나 감미로운 하모니로 재탄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곡은 그 동안 케이블부터 지상파 프로그램 MC로 맹활약해온 성시경이 가수 복귀를 앞두고 선보인 보너스 트랙 같은 노래로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노래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깜짝 선물과도 같은 노래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올 겨울 성시경이 팬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과 함께 감미롭고 따뜻한 시간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시경은 오는 9일 자정 스페셜 리메이크 앨범 '윈터 원더랜드'를 발매한다. 또한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성시경 전국 투어 콘서트-겨울'로 팬들과 만난다.

/김민준기자 soloist@metroseoul.co.kr

비투비, 캐롤 '울어도 돼' 발표

겨울 감성 자극… 차트 상위권 진입

그룹 비투비(사진)가 캐롤 '울어도 돼'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자지하며 겨울 음악 인기의 선두에 서었다.

비투비는 3일 자정 음원 사이트를 통해 윈터 스페셜 음반 선공개곡 '울어도 돼'를 발표했다.

'울어도 돼'의 진입 순위는 엠넷 6위, 몽키 쓰리 1위, 올레 뮤직 4위, 지니 6위다. 비투비가 데뷔 이래 낸 최고 성적이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겨울 감성의 노래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울어도 돼'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될 솔로들의 애환을 솔직한 가사와 달콤한 멜로디로 담은 곡이다. 비투비는 이번 노래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 대신 솔로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발랄한 매력을 보일 예정이다.

비투비는 지난 9월 '넌 감동이야' 발표에 이어 국내 첫 단독 콘서트와 일본 데뷔까지 맹활약했다. '울어도 돼'의 발표와 함께 이달 중 컴백을 앞두고 있다. /전효진기자

화요비의 신곡 기대하세요

연말 5년 만에 단독 콘서트

가수 화요비(사진)가 5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는 오는 30일 오후 8시와 31일 오후 10시 이틀에 걸쳐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다.

화요비는 공연에서 '라이', '그런 일은', '어떤 가요',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등 그 동안의 히트곡을 부를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발매할 새 앨범의 전체 수록 곡을 처음 선보이는 무대도 마련했다.

화요비의 소속사 측은 "한해의 마무리가 아닌 한해의 시작을 팬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공연"이라며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화요비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화요비는 최근 JTBC 예능프로그램 '마녀사냥', '냉장고를 부탁해', MBC '세바퀴', KBS2 '안녕하세요' 등에 출연하며 예능 감각을 발휘했다.

공연과 1월 앨범 발매를 기점으로 뮤지션으로 컴백하겠다는 각오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이승기·이민호 '새해 극장에서 만나요'

'오늘의 연애' '강남 1970'서 첫 주연 도전

드라마로 사랑 받은 청춘스타들이 2015년 새해와 함께 스크린 첫 주연 신고식을 치른다. 이승기와 이민호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내 여자라니까'로 가수로 데뷔한 뒤 예능과 드라마 등을 섭렵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06년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한 그는 '찬란한 유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더킹 투하츠' '구가의 서' 등 흥행 드라마에 출연해 성공적인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내년 1월 개봉을 앞둔 '오늘의 연애'(감독 박진표)는 이승기가 데뷔 10년 만에 선택한 첫 영화다. 여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춰주지만 늘 100일도 못 가 차이기 일쑤인 답답한 남자 준수 역을 맡았다.

극중 준수는 착하고 바르며 성실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여자라고 외칠 정도로 연애에는 무능력한 남자다. 18년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여자 때문에 속 태우는 인물로 문채원과 로맨스 연기를 펼쳤다.

이승기는 스크린 데뷔작임에도 안정적인 연기와 세밀한 감정선으로 준수를 자신만의 캐릭터로 소화해냈다. 현장에서도 박진표 감독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공유하는 열정을 과시했다.

한류 스타 이민호도 내년 1월 개봉 예정인 '강남 1970'으로 오랜만에 스크린을 찾는다.

이민호는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을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2009년 '꽃보다 남자'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2011년 '시티헌터'에 출연하며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다. 지난해에는 '상속자들'로 변함없는 흥행성을 입증했다.

'강남 1970'은 이민호의 7년 만의 영화이자 첫 스크린 주연작이다. 1970년대 개발이 막 시작된 서울 강남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린 작품으로 이민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종대를 연기했다.

종대는 고아 출신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과 땅을 향한 꿈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 없는 청춘이다. 잘 살고 싶다는 꿈으로 강남 개발의 이권 다툼에 끼어들며 건달 생활을 하게 되는 혁명이다.

이민호는 이번 영화로 기존에 보여준 단정한 이미지를 탈피한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한다. 거친 욕설은 물론 각종 연장을 휘두르는 거친 액션까지 소화했다.

/유병철기자 soloen@metroseoul.co.kr

'쥬라기 월드' 14년 만의 재개장

시리즈 네 번째 작품 내년 6월 국내 개봉

'쥬라기 공원'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인 '쥬라기 월드'가 내년 6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쥬라기 공원' 시리즈는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로 첫 선을 보인 뒤 1997년 '쥬라기 공원2: 잃어버린 세계', 2001년 '쥬라기 공원3' 등으로 이어진 인기 프랜차이즈다. '쥬라기 월드'는 14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을 맡았다.

개봉 확정과 함께 티저 예고편도 공개됐다. 14년의 시간 동안 발전된 영상 기술을 반영한 만큼 압도적인 스케일과 풍부해진 스토리,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을 담았다. 주인공 오웬(크리스 프랫)의 활약과 함께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공룡들이 불러일으킬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연출을 맡은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은 "'쥬라기 월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는 영화다. 공상과학도 아니고 공포나 순수한 액션 어드벤처도 아니다. 단순하게 웃기거나 슬프기만 한 영화도 아니고 로맨틱하기만 한 영화도 아니다. '쥬라기 월드'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병철기자

염정아·천우희·김지미 '올해의 여성영화인'

배우 염정아(왼쪽 사진), 천우희(가운데), 김지미(오른쪽)가 '2014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4 여성영화인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 후보선정위원회는 3일 '2014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실비 소재의 작품이 많은 한 해였던 만큼 세상의 시선에 맞서 여성들의 관계와 연대에 의미를 둔 작품을 주목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고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자는 영화 '카트'의 주연 배우 염정아. 여성 가장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역할로 열연을 펼쳐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한공주'로 가능성 있는 배우로 주목 받은 천우희는 연기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명배우이면서 영화제작자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한 원로배우 김지미에게 돌아갔다.

5개 부문상 수상자도 공개됐다. 연출·시나리오 부문은 '도희야'의 정주리 감독이, 제작 프로듀서 부문은 '수상한 그녀'의 임지영 프로듀서가,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은 '자, 이제 댄스타임'의 조세영 감독이 받는다. 기술 부문에서는 '끝까지 간다' 등에 참여한 오소리 사운드 디자이너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보마케팅 부문은 '수상한 그녀' 등을 맡았던 영화마케팅사 흥미진진이 선정됐다.

한편 '2014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은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안국동 씨네코드 선재에서 배우 고아라의 단독 사회로 열릴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강인·박세영의 연애 스토리

'고양이 장례식' 1월 개봉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과 배우 박세영이 주연한 영화 '고양이 장례식'이 내년 1월 개봉한다.

'고양이 장례식'은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20대 청춘의 연애 스토리를 담은 로맨스 영화다.

강인은 슈퍼주니어 멤버로 노래는 물론 예능과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이번 영화에서는 사랑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도 표현에는 서툰 뮤지션 동훈 역을 맡았다.

박세영은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드라마 '기분 좋은 날' 등을 통해 자세대 여배우로 주목 받고 있다. 극중에서 망설임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만화가 재희 역으로 강인과 호흡을 맞췄다.

개봉 확정과 함께 영화 속 두 배우의 케미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틸도 공개됐다. 아이돌 가수에서 배우로 거듭난 강인과 차세대 여배우 박세영의 로맨스가 새해 극장가를 따뜻하게 할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날씨

12/4 木 일출 07:30 일몰 17:14

추운 겨울에는 작은 부상에도 뼈와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복식호흡 등을 통해 몸의 긴장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가야 합니다

								3
9	6	5			8	7		
						6	1	5
				8		9		
		6	3		9	5		
		1		6				
4	2	3						
		9	2			3	5	8
8								

스도쿠 정답

7			6			2		4
3					1			
6		1		5				
8	8			4		3		
		2				7		
		7		2			9	6
				1		8		7
			8					1
1		6			4			9

문제 제공 - 보누스
「엔사 스도쿠 프리미어」(제타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아귀찜, 이름에 담긴 수난사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아귀는 억울한 생선이다. 맛과 관계없이 생김새 때문에 모진 구박을 받았다. 우리는 예전 아귀를 잡으면 재수 없다고 바다에 집어던져 물텀벙이란 별명을 얻었다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는 아귀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바다가재(poor man's lobster)라고 했다.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리지만 바다가재처럼 맛은 좋아도 여유 있는 사람은 사먹지 않는 생선이라는 뜻이니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니다. 사람들 편견도 대단했다. 못생기면 성질도 음흉하다고 생각하는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선 이름에 까칠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다.

우리말 아귀만 해도 배고픈 귀신이라는 뜻이다. 배가 엄청 커서 많이 먹어야 하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 음식을 삼키지 못하니 늘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지옥의 배고픈 귀신, 아귀(餓鬼)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어 이름은 몽크피시(monkfish)다. 수도승을 뜻하는 몽크를 닮았다고 지은 이름이니 언뜻 경건한 것 같지만 바다 속에 음흉하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검은 망토를 둘러 쓴 음산하고 스산한 모습의 중세 수도승 같아서 얻은 이름이다.

프랑스에서는 아귀를 롯데(Lotte)라고 부른다. 괴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이름이 같다. 웬일로 이런 예쁜 이름을 지었을까 싶지만 아귀와 아가씨 롯데와는 어원이 다르다. 여자 이름 롯데는 샤를롯(Charlotte)의 줄임말이고 아귀라고 할 때의 롯데는 "입이 크다"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비롯됐다.

일본말로는 안코(あんこう)라고 하고 한자로는 안강(鮟鱇)이라고 쓴다. 가만히 웅크리고 숨어있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 역시 음흉하다는 이미지가 담겨있다. 안강망 어업이 바로 아귀의 사냥 습성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아귀를 하마어라고 하는데 두꺼비를 닮은 물고기라는 뜻이다.

이랬던 아귀가 지금은 값비싼 생선이 됐다. 역시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귀찜이 맛있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사귀는 여성이 돈 빌려달라 조르는데 연연하지 말고 정리하는게 현명한 일

Q 불광동 남자 52년 5월17일 음력 진시생

안녕하세요. 속이 답답해서 선생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52년 음 5월17일 진시생 입니다. 어디를 가나 제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던 중 한 사람과 좀 오래 사귀다보니까 사정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망설이다가 마이너스대출을 받아서 줬는데 금방 준다는 게 일년이 넘었는데 돈 생기면 꼭 갚는다 하면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재촉을 쓰는데 안 빌려주면 전의 돈도 못 받을 거 같고 돈이 없는 것 아니까 할금서비스 라도 해달라고 보채요. 제 사주가 어떤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의 처신 등 두서 없이 부탁드립니다.

A 사주추명의 목적은 타고난 운명을 현명하게 알고 대처하며 후천적인 노력을 더하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귀하는 역학용어로 양팔통(천간과 지지가 모두 양)사주로서 외향적이라 활동력이 강하고 그러다보니 이성에게 약한 면도 있습니다. 변화(丙火)생일간의 운이 묘기(墓氣)로 흐르므로 여자가 많습니다. 현재 부부관계가 아닌 이성운이 묘태변상 절지(絶地)에 있으니 귀하와 인연이 되지 못할 니다. 귀하는 양인(羊刃) 양의 칼이라 재궁이 들갈한데 겁재(劫財) 재물을 겁탈 당하는 운에 여자분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여성의 인성(印星) 자기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인격이니 문서 계약을 나타내는 오행이 충살(沖殺) 충돌하고 깨어지는 형상이 자운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 용어가 어려우시니 그만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세요. 돈을 빌려 줄 때 정식적인 차용증 같은 것도 받아놓지 못 했으니 법적으로도 어쩌할 수가 없으니 포기하시고 정리 하도록 하세요. 남자사주에서 재성(財星: 재물과 여자)은 재물과 여자를 같이 의미하니 돈이 떠날 때는 여자도 떠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생일지(태어난생일)가 일락서산(日落西山)에 백호살(白虎殺)이 겹쳐 본인이나 배우자신상에 흉액이 우려되고 일점 수기(水氣)가 없어 건고(乾枯) 너무 고갈되어 있으며 외유내어(外柔內剛)하고 동주 입묘공(日柱入墓)할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묘지에 들어간 것과 같음에 김하여 시비구설수가 따를 소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4일(음 10월 13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지나간 일은 논하지 마라. 60년생 모든 돈 쓸 곳이 생긴다. 72년생 실익이 없는 일에 목매지 말라. 84년생 맡은 일은 난항이 예상된다.

소: 49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61년생 찌들려진 가운데 세 바람 솔솔~. 73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85년생 직무는 늦더라도 제대로 하라.

호랑이: 50년생 뒤가운 일이면 빨리 해라. 62년생 남쪽 가면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74년생 오명을 씻을 다음 새 일 도전하라. 86년생 열정있어 좋은 기회가 온다.

토끼: 51년생 섣익은 계획은 손해를 부른다. 63년생 문서 일 미루지 말라. 75년생 소송 등 법정싸움은 이긴다. 87년생 이성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라.

용: 52년생 큰 것을 얻으려면 기다려라. 64년생 주고 무시하면 큰코다친다. 76년생 남과 비교하면 나만 불행~. 88년생 주도한 일은 탄력이 붙는다.

뱀: 53년생 남쪽에 가면 웃을 일 있다. 65년생 조직서 눈 밖에 난 사람 주목할 것. 77년생 꿈이 자라 애를 줄거운 격이다. 89년생 술자리서 실언 조심~

말: 42년생 짧고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54년생 우유부단하면 손해 있는다. 66년생 자존심이 상해도 일단 참아라. 78년생 맞벌은 유머는 더 쌀쌀하게 만든다.

양: 43년생 학고기 같은 잔소리된다. 55년생 공적인 일이 단독플레이는 삼가라. 67년생 조용히 있는 게 후회된다. 79년생 조직의 일원 역할에 충실할 것.

원숭이: 44년생 생각도 못한 고민 생김~. 56년생 가장 소중한 것은 옆에 있는 배우자다. 68년생 익숙 함부로 먹지 말라. 80년생 계획 서두르는 게 이롭다.

닭: 45년생 원칙보단 냉정이 필요하다. 57년생 어른 따먹 일지 않도록 신경 써라. 69년생 돈줄에 줄려서 항숨 뜰린다. 81년생 부모의 심정 헤아리는데 노력하라.

개: 46년생 닫힌 문엔 노크 말라. 58년생 욕심이 많으면 선택도 고통이다. 70년생 계획은 앞당겨 진행할 것. 82년생 일하던 귀중한 정보는 얻는다.

돼지: 47년생 문서 일엔 차질이 생긴다. 59년생 부동산은 분할 매각 하면 이득~. 71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3년생 개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PL '코리안 더비'… 기성용, 윤석영에 완승

현지 언론 "기성용 베스트 플레이어" "윤석영 워스트 플레이어"

기성용

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윤석영(왼쪽) /AP연합뉴스

기성용(25)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팀 승리를 이끈 결승골을 터뜨렸다. 시즌 2호골이다.

기성용은 3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를 상대로 후반 33분 0-0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그대로 결승골이 됐고 스완지시티는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는 기성용과 함께 QPR의 대국전사 윤석영이 풀타임 출장해 '코리안 더비'로 관심을 끌었다. 기성용과 윤석영은 각각 14경기 7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팀의 주축 역할을 했다.

기성용이 중원에서 공수를 넘나들며 윤석영과 볼 다툼을 하는 경쟁도 연출됐다. 둘의 경쟁은 후반 중반까지 골이 터지지 않아 수비수인 윤석영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듯했다.

기성용이 결승골을 넣기 전까지 QPR은 슈팅 5개 밖에 시도하지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최전방 공격수 윌프리드 보니를 앞세워 14차례 골문을 두드렸으나 득점하지 못했다. 특히 후반 23분에는 보니가 로버트 그린 골키퍼와 1대 1 상황을 맞았으나 선방에 막혔다.

견고하던 QPR의 수비벽은 기성용의 슈팅 한 방에 무너졌다. 기성용은 10분 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뒤 골 지역 근처까지 침투했다. 슈팅 각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반대편 골대를 맞은 뒤 골대 안쪽으로 향했다.

기세를 올린 스완지시티는 라우틀리지가 후반 38분 연이어 추가 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로써 기성용은 지난 8월 1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개막전 이후 3개월여만에 시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현지 언론은 기성용의 골에 호평을 보냈다. 웨일스 온라인은 "기성용이 리온 브리튼과 함께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경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 평점은 팀 내에서 가장 높은 8점을 줬다.

골닷컴은 기성용을 '베스트 플레이어', 윤석영은 '워스트 플레이어'로 기록해 '코리안 더비'를 펼친 두 선수에 상반된 평가를 줬다. 골닷컴은 기성용에 대해 별 4개를 주며 "전방 패스 연결 능력이 탁월했다. 각도가 없는 지역에서 훌륭한 골을 만들어냈다"고 칭찬했다. 반면 윤석영에 대해서는 별 2개만 부여하며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기로 20개 팀이 겨루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스완지시티는 리그 6위에 올라 섰고 QPR은 리그 19위로 하락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팬 친화적 리더십'의 명장 다시 교단으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의 사령탑 박경훈(53·사진)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제주 구단은 3일 "박경훈 감독이 장석수 사장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감독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박 감독이 1일 저녁 사장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감독의 뜻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사퇴 후에는 전주대학교 교수로 복직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구단에서는 사퇴를 만류했지만 박 감독의 의지가 강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제주 사령탑으로 부임한 박 감독은 5년 동안 정들었던 제주를 떠나게 됐다. 특히 2010년 말 구단과 5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2015년 말까지 보장돼 있었지만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박 감독은 전주대학교 체육학부 축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9년 10월 제주 사령탑을 맡아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2009년 시즌까지 하위권에 머물던 제주는 박 감독의 지휘 아래 2010년 시즌 정규리그 준우승까지 차지하며 기적을 일궈냈다. 박 감독은 그해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박 감독은 팬과의 소통에서도 단연 두드러지는 수장이었다. 제주는 지난 2012년 최다 관중 증가를 보인 구단에 주는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지난해에는 팬과 소통하는 구단에게 주는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에서는 제주가 프로구단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 감독은 2010년 이후 팀의 주축이었던 구자철 홍정호 산토스 페드로 등이 팀을 빠져나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 제주를 클래식 A그룹 리그 5위로 올려 세웠다.

제주는 "박 감독의 후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드래프트와 전지훈련 일정이 빠듯한 만큼 조만간 차기 사령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손흥민, 포칼 3경기 출전 정지

독일축구협회(DFB)의 컵대회인 포칼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걷어차 퇴장 당해 거칠게 항의했던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레버쿠젠은 3일(한국시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손흥민에 대한 포칼 3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10월30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열린 FC 마그데부르크(4부 리그)와의 2014-2015 DFB 포칼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3분 볼 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상대 선수 실비오 방케트를 발로 걷어차 퇴장당했다. 퇴장 지시를 받은 손흥민은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DFB는 이런 행동을 한 손흥민에게 지난달 초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내년 3월 첫째 주로 예정된 FC 카이저슬라우테른(2부리그)과의 3라운드(16강)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2라운드에서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가운데 마그데부르크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진땀승을 거두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바 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이 결승에 올라야 포칼 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프로축구 전적 (03일)

광주	3	1	경남

프로농구 전적 (03일)

KT	19	15	18	14	9	14	89
삼성	19	10	24	17	9	13	92

인삼공사	18	11	25	17	71
오리온스	16	14	14	15	59

우리은행	19	13	23	27	82
KDB생명	12	14	27	14	67

프로배구 전적 (03일)

현대건설	3	0	도로공사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8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